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5호> 2017년 8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7월 초에 내린 규슈북부 호우로 오이타현은 히타시를 중심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의 위로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흥과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 모습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오이타현립미술관에서는 지브리 박람회가 개최 중입니다. 전시 기간은 9월 3일까지이므로 오이타현에 오시면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제 2 회 오이타현 스터디 투어 다케타시 구주를 만끽

7월 15일, 오이타현 사비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 19 명이 ‘제 2회 오이타현 스터디 투어’에 참가하여 다케타시 구주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복지농장 코로니 구주’입니다. 농장을 견학하고 소시지 또는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한 후 점심은 야외에서 다 같이 바베큐를 먹었습니다. 이후 구주꽃공원에도 방문하여,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라벤더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주 와이너리를 방문해 와인과 포도 주스를 시음하기도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본인의 SNS 등에 이번 스터디 투어 감상을 올리는 과제가 있습니다. ‘#留学生スタディツアー’를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글을 발견하시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이타현 소식>

규슈북부 호우 피해 발생

오이타현을 포함하는 규슈 북부에서 7월 5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운용이 시작된 특별경보가 현내에서도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며, 특히 히타시의 피해는 사망자 3명, 부상자 4명, 건물 피해 1,58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가게츠가와 강 범람에 의해 JR규다 이혼센의 철교가 유실됐고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버스 대행 수송 실시) 철교의 복구는 당초 3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JR규슈에 의하면 2018년 여름을 목표로 복구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24일 현재, 현내외에서 5,29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활동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벳푸시 온천 테마파크 ‘유~원지’ 실현

온천과 유원지를 결합한 벳푸시의 이벤트 ‘유~원지’가 7월 29일 벳푸 라쿠텐치에서 개원되어 폐원하는 31일 까지 약 9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주셨습니다. 벳푸시는 인터넷으로 자금을 모으는 클라우드 펀딩으로 운영 자금 약 8,200만 엔을 모았으며, ‘온천 버블 제트코스터’, ‘온천 회전목마’ 등 총 12개의 놀이기구가 마련되었고 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주었습니다.

참신한 이벤트로 화제를 모은 벳푸시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이벤트가 개최될 것 인지 기대됩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5호> 2017년 8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오이타현립 미술관 ‘지브리 대박람회’

2015년 4월에 오픈한 오이타현립미술관은 영문 표기인 ‘Oita Prefectural Art Museum’의 이니셜을 따와 ‘OPAM(오팜)’이라 불립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반 시계루가 설계해 주목을 받았으며, 2015년도 일본건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벳푸의 대나무공예를 모티브로한 신선한 외관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오이타역에서 미술관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지붕으로 이어져있어, 궂은 날씨에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점이 특징입니다.



오이타현립미술관 1층에는 전시실 A, 어느새 명물이 된 달걀 모양의 설치 조형물 ‘유라시안 가든 스피릿’, 기념품 가게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연수실, 체험학습실, 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컬렉션 전시실과 전시실 B 등이 있으며, 오이타현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 5,000점의 작품은 매번 다른 테마의 컬렉션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이타현립미술관에서는 ‘지브리 대박람회 ~나우시카부터 마니까지~’가 개최 중입니다. 규슈에서는 나가사키에 이어 두 번째로, 스튜디오 지브리의 30년간의 발자취를 3,000여점에 이르는 귀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입니다. 전시실 입구 앞에는 천공의 성 라푼셔에 나오는 거대한 비행선이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있어 내부에는 또 어떤 멋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을지 기대감을 자아냅니다.

가장 먼저 관람하게 되는 하늘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하늘을 나는 기계들’전에서는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에 등장하는 비행선 등 하늘을 나는 기계의 모형과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 전시물을 보고 있으면 등장하는 작품 속의 장면들이 머릿 속에 그려집니다. 포스터 룸에는 지브리 역대 작품의 포스터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채색하기 전의 스케치나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는 과정 등 포스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스튜디오 지브리의 팬이라면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의 작업실을 재현해두어 생생함을 더하고, 지브리 창고 코너에는 작품 선전에 사용된 홍보용 물품들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물론 귀여운 토도로와 오이타행 고양이 버스를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여름은 오이타현립미술관의 ‘지브리 대박람회’를 통해 스튜디오 지브리의 세계관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7월 7일(금) ~ 9월 3일(일)

개관시간 : 10:00 ~ 19:00 (금,토요일은 20:00까지)

입장료 : 어른 1,400엔, 중,고등학생 1,000엔, 4세~초등학생 600엔

※스탬프 이벤트 : 지브리 대박람회와 벳푸의 팔탕온천 중 두 곳에서 스탬프를 받아오면 아뮤플라자 오이타에서 스튜디오 지브리 오리지널 타올 증정 (선착순)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5호> 2017년 8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오이타시미술관&오이타 캔버스



오이타시미술관은 1999년 우에노가오카 공원 내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원의 산책로는 미술관으로 이어져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언덕 위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아름답습니다. 특히 전시실로 이어지는 통로 등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등 따뜻한 분위기의 미술관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쿠다 헤이하치로(福田平八郎) 타카야마 타츠오(高山辰雄) 등 오이타현 출신 작가들의 작품 등이 4개로 나뉘어진 상설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으며, 레스토랑 및 도서 코너, 기념품 샵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상자 아트 유원지’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으며, 컬렉션전의 작품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낮게 전시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컬렉션전을 감상한 후 오이타시미술관 미술진흥과 오사다(長田) 과장과 짧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와 외국어 팸플릿이 구비되어 있나요?

작년도 방문객 수는 약 24만명이며 그 중 외국인 방문객 수는 773명이었습니다.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내년에 열리는 국민문화제와 내후년에 개최될 럭비 월드컵을 대비해, 내년 중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팸플릿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전시회를 기획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시회 스케줄을 기획할 때 중요시 하는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름 방학 시즌에 맞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시회일 것, 오이타의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회일 것, 일본 및 해외 유명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회일 것 이 세 가지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며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3. 다른 미술관과의 차별점은 무엇이 있나요?

도시 중심지에 있는 현립미술관과 아트 플라자와 다르게 오이타시미술관은 역과는 가까우면서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치와 함께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타시 중심 시가지를 순환하는 ‘오이타 캔버스’

오이타역을 출발하여 오이타현청, 시청, 아트플라자, 현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을 순환하는 버스로 오이타 캔버스의 귀여운 마크가 그려진 전용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주말은 오전9시 3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며, 오후 5시까지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오이타 캔버스와 함께 미술관 투어를 떠나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요금 : 어른 100엔 초등학생 이하 50엔 (주말 어린이 무료)

1일 자유 승차권 300엔

